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의 2021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감 사 이 성 형 

감 사 양 대 군 

피 감사 자 (입 회 인)

직 명 범 인 국 장
성 명 전 경 국 

(별지 제1의1호 서식)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1. 보육 교사교육원 집행금액 원천징수 미이행</p> <p>1) 현황 : 보육교사 교육원의 원장과 보직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강순희 보육교사 교육 원장의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강사료 및 직책수당 집행금액 5,199,190원에 대하여 원천 징수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음.</p> <p>2) 문제점</p> <p>① 적절한 원천징수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문제</p> <p>② 교직원을 산하기관의 업무에 겸직 발령하는 경우는 빈번할 것인데 각기관의 회계 단위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소득 합산 신고에 대한 학교법인 전체의 종합적 회계 관리 체계가 없어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큼</p> <p>3) 개선 권고안 : 회계 및 세무신고의 질 관리를 위한 학교법인 산하 기관 회계 업무 감독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기를 권고함.</p>	<p>보육교사교육원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계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p>
<p>2. 법인 수익사업회계 임대용 부동산의 계정 구분 오류</p> <p>1) 현황 및 문제점 : 법인의 임대용부동산(원룸)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관리 되지 않고 건물 668,835,880원으로 단독계정처리 관리되고 있어 계정구분 및 감가상각 적용에 회계오류가 있고 회계정보 왜곡 있음.</p>	<p>법인 수익사업회계 임대용 부동산 중 토지 216,957,686원, 감가상각비 5,423,542원과 전기오류수정이익 25,311,730원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p>
<p>3. 산하기관 회계업무 위탁 관리 운영 문제점</p> <p>1) 현황 : 법인의 산하기관 회계업무처리를 위한 위탁업무가 개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고 회계 및 세무관리의 질 관리가 법인 전체적으로 적용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보육교사교육원의 경우 예금의 거래내용이 회계장부에 다르게 집계 기표 되고 있어 회계장부와 통장의 월별 잔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왜곡 관리되고 있어 회계관련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음.</p>	<p>현재 법인 산하기관인 교비회계, 법인회계, 보육교사교육원회계는 별도의 회계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법인 산하기관 회계업무 외부 위탁 운영시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 처리방식, 위탁업무 계약 및 지급보수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 관리하는 업무 감독체계 확립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p>

<p>2) 개선권고안 : 법인의 산하 기관 회계업무외부 위탁운영시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 처리방식, 위탁업무 계약 및 지급보수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 관리하는 업무 감독체계 확립하기를 권고함.</p>	
<p>4. 감사실 운영상태와 정관시행 세칙 개정 문제</p> <p>1) 현황: 감사가 전년도 정기 감사보고에서 지적하였던 내용과 같이 내부통제체계의 근간으로서 감사실의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시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감사실장은 궐위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3차이사회에서는 정관 시행세칙 개정으로 감사실 직제를 폐지하는 움직임 등이 있었음.</p> <p>2) 감사실 체계 확립을 위한 대학 집행체제의 불명확한 의지는 내부통제구조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큼.</p> <p>3) 감사실장 보직인사가 신속 시행되고 합리적 운영행정을 위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내부통제 구조 체계가 확립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p>	<p>감사실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제3차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으며, 2022.05.16.일자 감사실장 보직인사를 시행 완료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중이며, 향후 내부감사 계획 수립 후 감사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p>
<p>5. 산하기관 잉여금의 합리적 운용안을 통한 법인 장기 운영계획 수립</p> <p>1) 현황 : 법인은 이사회(2022년 2월 25일, 3차)의 의결로 산하 보육교사 교육원을 법인이 직접 관리하던 체계에서 대학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정관시행세칙 제11조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위해 두는 기관으로 ①항의 보육교사교육원을 삭제하였는데 2022년 2월말 보육교사교육원의 현재 누적 잉여금은 1,045 백만원으로 운용계획 수립 없이 방치하고 있음.</p> <p>2) 문제점</p> <p>① 산하기관의 운영을 통한 잉여금은 기관 운영의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운용계획을 세워 운용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운용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음</p> <p>② 현재 법인의 재정 상태로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대학출연금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에서는 국고재정지원등급 심사과정에서 재단전입금이 적어 문제화 되고 있음.</p> <p>③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보육교사 교육원을 바꾸는 사유가 단지 교육부 감사결과 대학 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는 명확하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법인의 종합적이고 합리적 운영 모색의 기회를 포기하는 줄</p>	<p>현재 보육교사교육원 회계는 별도회계로서 누적 잉여금을 보육교사교육원 관련 사업 외에는 타 회계로 전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육교사교육원 회계에 대한 별도의 회계 실태점검을 계획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보육교사교육원의 잉여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p>

<p>속행정이 될 수 있음</p> <p>3) 개선 권고안 : 법인 산하기관의 운영결과 발생 누적된 잉여금을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식으로 법인의 회계로 전입하고 이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학교에 출연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감사는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의 상세한 조력을 받아 잉여금 운용방안을 수립하기를 권고하고 이러한 절차와 함께 2022년 3차 이사회 의결사항을 재의하길 권고함.</p>	
<p>6. 감사의 이사회 감사보고에 대한 답변 및 조치내용 부재</p> <p>1) 현황 : 감사가 의견을 제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에게 답변 및 조치계획이 회신되어야 이사회와 감사간에 원활한 업무의 소통형식이 갖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2021년 12월 23일의 이사회에 보고한 감사보고의 견은 동일자의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장이 낭독하였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토의와 조치에 대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감사에게 그 내용에 대한 아무런 답변과 회신도 없는 상태임.</p> <p>2) 문제점 : 이사회에 보고되는 감사의견에 대하여 이사회가 답변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회신도 없이 이사회가 운영 되어진다면 이사회를 견제하고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의 입장에서는 이사회 운영의 신뢰감에 대한 상실이 커지고 조직운영 과정의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법체계를 무시하는 위법한 행위임.</p> <p>3) 개선 권고안 : 감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견 내용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심의하여 그 검토 내용 및 조치계획의 결과를 감사에게 회신하여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감사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업무에 반영토록 권고함.</p>	<p>이사회에 감사보고한 사항에 대해 2021년 제12차 이사회에 보고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는 감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견 내용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할 계획입니다.</p>
<p>7. 이사의 부적격 및 후속 조치 부재의 문제</p> <p>1) 현황 :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에 대하여 감사는 2021년 12월 23일 이사회에 보고 내용에서와 같이 법인 정관 시행세칙(2019.2.11.) 제7조의 규정에서 「본 법인의 임원의 자격은 학교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교직원의 친인척(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설립자의 친인척(친족)은 예외로 한다.」</p>	<p>법인 이사회 운영 관련 감사결과는 2022년 제5차 이사회에 보고 완료한 사항으로 추후 이사회 및 법인에서 세밀한 검토 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p>

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이사 자격 배척요건을 갖추고 있으니 신속한 후속조치를 권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까지 ○○○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사의 선임 및 그 이사의 수행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법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제3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법인은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지적한 내용과 같이 이사회에서 신속 조치하는 절차가 취해지지 않고 방치된다면 이사회 구성원의 배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3) 개선 권고안 : 이사의 자격요건에 벗어나는 ○○○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 취하고 ○○○가 참석하여 의결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전수 검토하여 분쟁의 여지를 해소시킬 것을 권고함.

8. 상임이사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의견

1) 감사는 2021년 12월 30일 ○○○ 법인팀장에게 전자메일로 「교직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감사업무자료 요청」 을 송부하였고 수일 후 회신이 없어 유선 전화로 자료 요청에 대하여 상임이사가 「감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자료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고 지시했다는 ○○○ 팀장의 답변을 청취하였고 금번 2022년 4월 7~8일의 정기감사 과정에서 ○○○ 팀장으로부터 직접 상임이사의 지시 내용을 확인하였음. 감사과정에서 ○○○ 팀장을 통한 상임이사와의 면담 요청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인이 대학교 교직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는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7인의 위원중에서 교직원 4인중 2인을 노조가입원으로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 구성 및 징계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하여 착수한 감사 절차에 대하여 감사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니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인사무국의 직원을 전횡적으로 지휘하는 상임이사의 업무행태는 위법한 것이며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2) 2021년 12월 23일 이사회에 보고한 감사의견서에서도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상임이사는 총장 선임위원회 운영에서도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고 파행운영의 책임이 있었던 것이며, 이후에서 현재

법인 이사회 운영 관련 감사결과는 2022년 제5차 이사회에 보고 완료한 사항으로 추후 이사회 및 법인에서 세밀한 검토 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까지에도 이사회에서 최종부결된 총장선임 안건의 후속 조치에서 일반 상식의 법제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존재하지 못할 법적 분쟁을 선동하며 후속 총장 선임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총장선임의 절차를 지체시키고 있어 상임이사 업무의 본분을 망각하며 대학교 총장 장기 부재로 인한 대학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큰 분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3) 위 7의 내용 같이 ○○○ 이사 자격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인 이사회의 운영의 모습은 이사장을 보좌하는 상임이사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임이사의 막중한 책임인 것입니다.

4) 2021년 5월 정기이사회에서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는 과정 중에 감사내용이 감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감사를 위협 비하하는 ○○○ 이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회의 책임 있는 조치와 ○○○ 이사의 사과를 요구 하였지만 이사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 상임이사는 아무런 태도의 개선과 반성 없이 이사회에서 지나치고 무례한 모습으로 상임이사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이사장 정 연

(법인 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린대학교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 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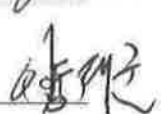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선린대학교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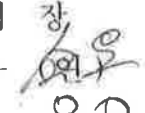
2022년 4월 29일


학 교 법 인 인 산 교 육 재 단

감 사 이 성 형 

감 사 양 대 군 

피 감사 자 (입 회 인)

직 명 기 획 처 장
성 명 송 용 
○○○

직 명 행 정 처 장
성 명 정 종 훈 

(별지 제1의2호 서식)

선린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1. 논문관련 연구비의 처리 문제</p> <p>현재 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연구비는 교원연구규정 제2조 4호의 직무교육비 1인 50만원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상호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논문연구비 등으로 인별로 10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교비회계에서 연구비로 비용처리되고 있습니다.</p> <p>별도 규정에 따라 지급된 학술연구비는 연구비로 처리가능한 것이나 해당 연구비와 관련된 별도 증빙이 전혀 없을 경우 향후 세무당국에서는 급여성 비용으로 보아 급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금액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 사용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증빙첨부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사용내역을 첨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p>	<p>학술연구비는 관련 규정에 의해 교무팀에서 전체 교수 대상 의견 수렴 후 지급방법에 대한 적절한 방안은 마련할 계획입니다.</p>
피감사기관장 <u>선린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송 용</u>	

(교비회계)

